

# 이명박 前 대통령 “측근들 내 재판 나오지 않게 하라”

### 검찰 진술조서 전부 동의...증인신문 안 할 듯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관련 자신의 재판에 측근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는 강현(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산)에 전체 증거 인부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메시지를 보내 “모든 증거를 동의하고 입증 취지는 부인하는 내용의 증거 인부서를 제출했다”며 “다만 의견서는 공소사실 모든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통상 피고인이 제출하는 것처럼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하라고 주장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검찰 조사단계에서 자신에게 불리

한 진술을 했던 측근들을 법정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에 부동의하면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신문하게 된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증인이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 검찰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며 “그 사람들을 법정에서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측에 객관적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고 강조해 그에 따르기로 결정했다”며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금융자료 추적이냐 청와대 출입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갖고 반박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사건에 신문하게 될 증인이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재판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별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10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31호 중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스



공동언론문 발표하는 아베 총리 (왼쪽)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9일 오전 일본 도쿄 모토야카사카 영빈관에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 이용섭, 시민불편 플랫폼 ‘광주행복 1번가’ 운영

### ‘당선시 취임 100일 내 해법 제시’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가 시민 불편사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해결하는 ‘광주행복 1번가’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 후보는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로부터 직접 접수받아 해결해드리기 위해 ‘광주행복 1번가’를 개통하게 됐다”며 “광주시장에 당선되면 취임 100일 이내에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접수받는 시민 소통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내 최초 정책 소평물인 ‘문재인 1번가’와 취지는 비슷하나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파악해 100일 안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 후보 측은 설명했다.

광주 시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의견을 쉽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후 생활불편사항 등을 접수하면 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이용섭 후보

공식 SNS계정이나 온라인 고객센터(카카오톡 @광주행복 1번가 플러스친구)를 통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접수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용섭 후보 선거캠프 ‘답쟁이 경청서포터즈’에 전화로 걸어 접수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

이 후보는 “그동안 1자리 2용섭의 12대 정책공약을 통해 광주발전 정책들을 발표했고 앞으로는 온라인 시민불편 플랫폼과 현안 집중점점 현장투어라는 두 트랙으로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영삼 “첫 ‘협치·연정’ 도지사로 지역발전 견인”

### 전남지사 출마 선언 “평화당 있어야 호남 대접 받아”



민주평화당 민영삼 전남도지사 후보는 9일 “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남발전의 양날개이므로 전남 발전을 위해 호남에서부터 상생과 협력을 선도 전남발전을 위한 최초의 ‘협치와 연정’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지사 출마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입문 이래 33년 동안 일관되게 민주, 평화, 개혁이라는 호남의 가치와 정신을 지켜왔다”면서 “김대중 정신과 5·18정신의 양날개

로 새로운 호남, 새로운 100년을 여는 새로운 인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민주평화당이 존재하기에 우리 호남이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다. 평화당의 힘이 든든하게 뿌리 내린다면 문재인 정부도 호남을 더욱 호락호락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며 “호남의 작은 아들인 민주평화당을 강한 아당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를 더욱 잘되게 하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 후보는 “호남에는 두 아들이

있다. 민주당이 큰 아들이라면 평화당은 작은 아들이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작은 아들 평화당을 이번엔 꼭 살려주십시오. 작은 아들도 한번 잘 되게 키워 주라”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과거 종편에서 김정숙 여사에 대해 ‘너무 나쁘다’는 막말 논란과 관련해 “역대 대통령 부인 평가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고발을 했다”면서 “전남지사 후보가 되자 또다시 저를 막말하는 사람으로 낙인찍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단호히 추적해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주요공약과 비전으로 ▲전남발전을 위한 협치와 연정 도지사 ▲어르신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연간 1억명 관광객 달성 ▲경제활성화로 돈이 도는 전남 ▲정년 이 정착하는 전남 ▲자치의 르네상스시대 개척 ▲성과중심의 혁신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뉴스스

## 김성모 함평군수 예비후보 “월급 100원, 나머지는 인재양성”

### “기업가로 쌓아온 기업경영 노하우 고향위해 사용”

6·13 지방선거 전남 함평군수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모 예비후보가 당선되면 월급을 100원만 받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9일 “함평군수에 당선되면 월급을 100원만 받고 나머지는 인재양성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기업가로 그동안 쌓아온 기업경영 노하우

를 고향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함평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봉사해 줄 것을 요구한 군민의 뜻에 따라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표적인 선거공약으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지원 개발부 유치, 국제골프교역실습장 조성, 국립축산기공학교 설립, 자동차 애프터산업진흥재단 설립, 추사김정희박물관 유치 등을 발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전담 경영고용센터 건립, 종장비·농기계 운전기능사 육성, 축산기공훈련원 건립, 마을명장 발굴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기업가인 김 예비후보는 함평군 번영회장을 역임하면서 지난해 경제제 사정이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서울대에 합격한 함평여고 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함평골프교 교육용 골프실습장 유치를 위해 지역 유지들과 함께 100여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해 왔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